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12. 29.(금)

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 수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임 각오 밝혀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 1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24년에는 '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할인행사 예산('23. 640 →'24. 1,338억원)과 최초로 2천억 원을 돌파한 정부 비축사업 예산('23. 1,750 →'24. 2,065억원)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현장에서 "원활한 수산물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 라는 각오를 밝히며, "앞으로 수산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6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